

이정후가 드러낸 사상 첫 3000안타 꿈

프로 데뷔 3시즌 동안 535안타...최연소 500안타 기록도

병역 혜택도 받아 부상없이 15년만 더 꾸준히 활약한다면 가능



“한국에서 최초로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이정후(21)가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회 중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망설임없이 “3000안타”라고 말했다.
이정후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누구도 밟지 못한 고지를 올려다보고 있다. 아직 먼 얘기. 그러나 불가능해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겨우 3년차 선수가 품은 큰 꿈이다.

이정후는 프리미어12 대회 기간 내내 일본의 큰 주목을 받았다. 아버지가 과거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뛰었던 이종범 LG 트윈스 코치라는 점과 이정후 스스로 보여준 활약 때문이다.
일본의 일부 언론과 팬들은 이정후를 일본 구단이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잘생긴 외모까지 더해져 이정후의 스타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정후는 “아직 해외에서 뛰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해

외로 나가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 때가 돼서 도전할만한 실력이 된다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최초로 할 수 있는, 해보고 싶은 목표도 있다”고 3000안타를 언급했다.
이정후는 프로 데뷔 후 3시즌 동안 535안타를 기록했다. 최연소 500안타 기록도 수립했다. 이대로 15년을 더 꾸준히 활약한다면 3000안타를 채울 수 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30대 후반까지 전성기를 이어가는 선수가 많

다는 점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정후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면제 혜택까지 받았기 때문에 부상만 없다면 공백을 걱정할 일도 없다.
한국 프로야구 통산 최다안타 기록은 LG 박용택이 보유 중이다. 박용택은 2002년 데뷔해 올해까지 18년 간 2439안타를 기록했다. 박용택이 내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기 때문에 당분간 프로야구에서 3000안타에 도전할 선수는 볼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력이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세계 최고의 무대인 미국 메이저리그를 향한 동경도 드러냈다.
이정후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처럼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것도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메이저리그를 많이 보면서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프리미어12를 통해 이정후는 국제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량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8경기에서 2루타 5개를 포함해 타율 0.385(26타수 10안타) 4타점 5득점을 기록했다. 대표팀 타자들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앞으로도 이정후는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야 할 선수다. 당장 내년에는 도쿄올림픽 일본 상대 설욕전에 앞장서야 한다. 가파르게 성장하며 3000안타라는 커다란 목표를 설정한 이정후. 그의 어깨엔 한국 야구의 미래도 올려져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김광현(31)이 소속팀 SK 와이번스와의 19일 첫 면담을 진행했다.
김광현은 이날 오전 인천문학경기장 3

프리미어12 결산②

실패한 ‘믿음의 야구’

냉정한 용병술 필요

‘에이스’ 김광현·양현종 부진에 4번타자 박병호 침묵

믿음의 야구가 실패했다. 앞으로는 막연한 믿음이 아닌 분석과 데이터에 따른 냉정한 용병술이 필요하다.
김경문 감독이 이끈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일본에 3-5 역전패를 당했다. 1회초 김하성의 투런홈런, 김현수의 솔로홈런으로 3점을 먼저 뽑았음에도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패인은 여러가지다. ‘에이스’ 양현종이 평소와 달리 3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 3번타자 김재환, 4번타자 박병호는 나란히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강했다.



김경문 감독은 11년 전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이승엽을 믿었던 것처럼 박병호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 박병호는 이번 대회 8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경기도 빠짐없이 4번타자로 출전했다.
그러나 베이징올림픽 일본과 준결승전에서 역전 결승 투런포를 쏘아올린 이승엽과 달리 박병호는 끝까지 침묵했다. 박병호와 함께 김경문 감독의 기대를 받았던 김재환도 함께 얼어붙었다.
김경문 감독은 결승전을 마친 뒤 “중심타선이 끝날 때까지 터지지 않았다”며 패인을 짚은 뒤 “야구가 그래서 또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경문 감독의 믿음은 선발 ‘원투펀치’를 향해서도 변함이 없었다. 김경문 감독은 “양현종과 김광현의 교체 타이밍은 선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다. 그만큼 자질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말했다.
양현종이 등판한 슈퍼라운드 미국전까지는 원투펀치가 사령탑의 믿음에 부응했다. 그러나 12일 슈퍼라운드 대만전에서는 김광현이 3⅓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다.
결국 대만전에서 한국은 0-7

참패를 당했다. 결승전에서는 양현종이 3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다. 이는 곧 3-0 리드를 지키지 못한 3-5 역전패로 이어졌다.
대만전, 일본과 결승전에서 김광현과 양현종은 컨디션이 좋아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투수 교체는 줄 점수를 다 준 뒤 이루어졌다. 원래 에이스 투수를 1~2회에 교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른 투수들을 활용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일본과는 대조를 이룬 대목이다. 일본은 결승전에서 선발투수 야마구치가 1회에만 홈런 2방을 맞고 3실점하자 2회부터 불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야마구치는 올 시즌 15승 4패 평균자책점 2.91로 센트럴리그 다승왕에 오른 일본의 에이스다. 그러나 이날 결승전에서는 1이닝 3실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대신 야마구치는 우승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감에 의존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 야구의 흐름이다. 김경문 감독 역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경기에 활용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객관적인 시각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뉴스1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